

대성가스, 여수 공업가스 공급확대

여수시와 800억원 투자 MOU 체결 ... 산업가스 13만루베 증설 계획

전남 여수산업단지에 산업용 가스 공장이 추가 증설된다.

여수시는 11월20일 전남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대성산업가스와 산업용 가스 공장 증설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대성산업가스는 여수산단의 6300여평에 800억원을 투자해 2009년까지 산소와 질소, 아르곤 등 산업용 가스 13만2000Nm³/hr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증설하게 된다.

대성산업가스는 현재 여수산단 입주기업에 공업용 가스 10만6000Nm³/hr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증설이 되면 여수산단 신증설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공업용 가스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국내 최대의 공업용 가스 제조기업인 대성산업가스는 일반가스는 물론 초고순도 순수가스, 반도체용 특수가스, 정밀혼합가스, 의료용 가스 등 다양한 가스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20>